

2023.03.05.(주일) 미가5:1-15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정근용 목사님

1.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2.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3.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4. 그가 여호와와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5.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앗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6. 그들이 칼로 앗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앗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7.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8.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의 사자 같고 양 떼 중의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9. 네 손이 네 대적들 위에 들려서 네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10.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이르러는 내가 네 군마를 네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네 병거를 부수며
11. 네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네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12. 내가 또 복술을 네 손에서 끊으리니 네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13. 내가 네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네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14. 내가 또 네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네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15.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갇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에워싸임 당하는 작고 초라한 내 삶이 계속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년 딱 이때쯤 <성령의 황홀>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그때 저는 「영적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세상에 보탬이 되는 존재’라고 보는 그 기준이 ‘200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200점 아래에 그런 의식들 천지였습니다. 수치심이 제일 낮은 점수였는데 20점, 그리고 죄의식이 30점, 무기력이 50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다 저의 전공이

있거든요. 반면에 700점에서 무려 1천 점에 해당하는 항목을 하나 소개해 주셨는데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로 제일 높은 지표였는데 **깨달음**이라고 하셨어요. 이 깨달음에 다다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참 애를 많이 씁니다. 정신 수양을 하기 위해 산을 타는 사람도 있고, 또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면서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들은 이 의식수준, 영적지수를 단 5를 올리는 게 참 쉽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5가 아니라 한 500 정도 되는 업그레이드를 한 것 같은 한 주를 보냈습니다. 한주가 참 기뻐고, 이 말씀 들으면서 하는 우리들교회에서의 하는 신앙생활이 참 너무 재밌다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주일 말씀 <팔복산의 배부름>에서 **우리 신앙의 목표는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어요. 사실 ‘잘못 말씀하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부 때 다시 말씀을 들으면서 잘못 들은 것이 아닌 것을 확인했고, 두 번째 말씀을 들으면서 ‘아! 정말 그렇구나! 그 말씀이 맞구나!’ 하는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말씀을 들으면서 벌써 한 영적지수가 한 100 정도 되는 기쁨을 누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주간 정말 돈 주고는 살 수 없는 ‘천국은 마치’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가 되었고 그래서 웃었고, 또 회개가 되면서 울었습니다. 지상 최고의 감정을 맛보았던 한 주였죠.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2절 말씀 본문에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게서 내게로 올 것이라> 입니다. 이 말의 주어가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 버둥대던 인생에서 나와 함께하는 인생으로...
 너가 목적인 인생에서 내가 목적인 인생으로 좀 나와줄 순 없겠니?
 해석되지 않던 인생에서 말씀으로 해석된 인생으로...
 자기 연민과 자기 중심성에서 십자가를 통과한 이타성으로 나와줄 수 없겠니?
 기복산에서 팔복산으로... 행복에서 거룩으로...
 하나님이 수단과 도구인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목적과 상급인 신앙으로 좀 나와줄 수 없겠니?
 무조건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잘 되고 봐야 돼!’ 하는 그런 강박에서 자기부인을 하고 십자가 지는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 앞으로 좀 나와줄 수 없겠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적용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첫번째로

1. 내 삶에 허락하신 ‘작을지라도’가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미가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는데요.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함께

사역하던 사역자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중에서 미가는 썩 유명한 선지자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알고 보면 꽤 고참급의 선지자였습니다. 유명한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100년은 앞선 사람이었고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미가의 굉장히 지조 있었던 그런 사역 때문에 100년 후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목숨을 건진 그런 특이점이 있습니다. 제일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무려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탄생하실 것을 정확하게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미가서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는 시점에서 남유다 너희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계속 우상을 섬기면 저렇게 되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자가 오실 텐데 그래서 너희들을 구원하시리라고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교차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5장에서 이 땅에 오시는 구원자의 모습은 그 구원자를- 그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그 사람들의 기대, 그리고 원함과는 좀 사뭇 달랐습니다. 아주 상반된 것이었죠. 진정한 메시아라면 이렇게 뭔가 짜잔~!하고 또 위대한 예루살렘 성- 그 시온성-에서 짜잔하고 즉위해서 이 풍전등화 같은 참 그 시대.. 그 이스라엘을 멋지게 딱 구원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이 베들레헴은 (우리에게는 참 유명하죠. 저희는 베들레헴이 너무 익숙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당시 사람들은 하나도 모르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동네였어요. 이제 여호수아 때 1천 명 이상 된 천부장이 나올 만한 유다의 기업들을 소개해 주는데.. 그래서 쪽 나오는데 이때 베들레헴이 소개해 주는 그 명단에서 빠져요. 전혀 알려주지 않아요. 다만 성경을 좀 아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라헬이 해산하면서 죽으면서 이 자식을 위해서 애곡했던 그런 동네구나. 애통함이 있었던 그런 동네였구나’ 정도로만 알려졌을 그런 곳입니다. 주님이 찬란하고 위대한 성이 아니라 정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작디 작은 동네에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예언을 하니 ‘그게 맞나?’하고 의아해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메시아가 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멋있게 아주 위대하게 딱 등장해서 정복 전쟁에서 승리해 나간다면 그런 메시아를 따르지 않을 사람이- 그런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손을 들고 호산나를 외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이 메시아의 이 ‘**작을지라도**’의 개념을 이해가 잘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과 자기의 잘됨이 우선인 사람은 예수의 길과 예수의 방식에 대한 미움과 무시가 딱 깔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잘됨도 물론 소중하죠. 잘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도 좀 보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존의 왕들- 기존의 패권-과는 뭔가 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가 의지하는 위엄은 보좌에 ‘앉아서’ 이렇게 거드름 피우는 그런 권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도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서서’ **서서 우리를 먹이시는 목자**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섬겨주시기 때문에 이 개역한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안연히

거하리라'고 안연히 거주할 것이라 하십니다. 그가 살롬이 되셔서 올해의 표어처럼 “이제는 안심하라” 그가 우리를 섬기시기 때문에- 서서 우리를 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이라 약속하시는 것이죠.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시는 리더십입니다. 군림하는 왕은 사실 두려움의 대상일 수는 있지만 정말 사랑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지금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 북쪽 하늘 저 어딘가쯤에 거대한 얼굴이 스윅하고 나타나- 하나님의 얼굴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실루엣이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참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앞에 엎드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이 누가 생기겠습니까? 참 우리의 억울함이 다 풀릴 것 같습니다. ‘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잖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엎드리고 복종하는 그 마음의 동기는 사랑일까요? 두려움이 아닐까요? 절대 감복해서 자원함으로 드리는 사랑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래 복장이 화려하면 그 사람의 내면이 잘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주님이 왕복을 입고 딱 이렇게 오셨으면 그 권세만 보이지 거기서 얻어낼 것만 보이지 그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 자체는 잘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작을지라도**의 그 베들레헴에서 오시고, 말구유로 오시고, 작은 점으로 우리에게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작게 오시는 주님이 해석이 되지 않아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 인생의 ‘작을지라도’ 이것이 전혀 해석되지가 못했던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모든 문제가 없어야 돼! 고난도 씩씩 잘 풀어내야 하고, 점점 죄도 짓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제 상황들, 제 모습들, 제 현실을 보면 너무 답답했고, 비참한 것이죠. 해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1절부터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딸’이라고 불러요. **‘딸군대여’** 이 앳수르의 대군이 막 몰려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항하려면 뭔가 영화 300 보셨죠. 근육질의 그런 군사들로 떼를 모아도 부족할 것 같은데 너무 무력한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이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들 손에 너희들을 붙여두시겠다고 하시는데 이 상황을 **해산하는 여인**같다고 자도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칼과 창을 가지고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산통을 지금 겪는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꼼짝 못하고 당해야 합니다. **전적 무능의 상태**입니다.

제 안에 20점의 수치심, 30점의 죄의식, 50점의 무기력이 있었다고 했는데 어릴 때부터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제안에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정신과를 갔더니 해리가 있다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억을 많이 잊어버린 부분이 많은 것 같다고. 해리가 있어서 다 기억은 안나요.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동네 형들을 따라서 동네 형들이라고해야 초등학교 형들이었죠. 형들을 따라서 비행 행위를 참 많이 저질렀습니다. 델몬트 병을 주워서- 30원 50원 받는 그걸 위해서 몇 km나

떨어진.. 우리 아이들은 진짜 집 앞 200m 되는 편의점에도 제가 잘 못보내요. 진짜 지도를 한번 찾아보니까 한 2~3km 되더라고요. 거기까지 제가 이렇게 원정을 다니면서 병원을 주워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 가기 전인데 길에서 콩초를 주어서 입담배를... 그리고 여탕을 높은 담을 넘어서 들어가 뭔지도 모르면서 감흥도 없는데 여탕을 훑쳐보고. 형들은 막 좋아하는데 누가 어른들이 올까 봐 망뵈주고. 그리고 자동차 와이퍼 부셔뜨렸어요. 뽐아서 오락실에 가서 찌르면 돈 올라가거든요. 가장 제가 힘든 기억이 있는데 가장 기억하기 싫은 장소는 옥상, 공사장 이런 장소였어요. 여러 차례 형들이 그때는 뭔지 모를 이상한 짓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가끔씩 저도 불렀습니다. 제가 막 그때 그 냄새가 너무 막 역해서 막 토했었던 그런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뭔가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그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부모님께 말씀을 못 드렸어요. 저희 아버지는 늘 녹초가 되어서 집에 들어오셨고, 저희 어머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늘 울고 계셨기 때문에 저까지 뭔가 부모님의 짐이 되고 걱정을 끼쳐드리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아이에게 벌써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안에 성적인 죄의식- 30점 짜리 의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 되면서 동네에서 불이 나서 쫓겨나고 폐허 같은 곳에 살면서 또 학교에 다니니까 또 친구들이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 현실을 보면서 더 열등감이 또 생기고, 이 가난에 대한 수치심도 더 생겨났습니다. 집에서 똥개를 길렀는데 강아지를 낳으면 막 열몇 마리씩 낳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그걸 갖다가 팔라고 했어요. 그러면 박스에 10마리 쯤 간신히 켜면 그 새끼들을 동네 정류장 앞에 가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팔았어요. 한 마리 당 5천 원에. 근데 누가 딱 내리는데 제가 짝사랑하던 그 친구가 버스에서 딱 내리면서 저랑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부끄러워서 ‘그만 살아야겠다’ 그런데 다음 날 의외로 저한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우리 집에 그 강아지 보러 놀러 가도 되냐고. 역시 세상은 살 만한 곳이었어요.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초등학생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약속했던 토요일이 되었고, 전교생이 다 좋아했던 그 친구. 저 같은 건 평소에 감히 말 한마디 걸어본 적도 없는 그 친구가! 그녀가 드디어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똥개들이 있으니 금세 우리는 베프가 되었죠. 근데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오라고. 근데 화장실에 다녀온 그녀가 아주 행복해진 표정이 되어서 말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대전에 그것이 우리 집 푸세식 화장실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그때부터 제가 제일 부러웠던 친구는 아파트 사는 친구. 그리고 한 번은 또 친구들과 치고받고 싸우고 돌아왔는데 그 친구가 비겁하게 아빠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부모님을 데리고 왔는데 저희 아버지는 연신 그분에게 고개를 조아리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셨고, 저만 혼내셨어요. 그리고는 저를 훈계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저 짝야 되지 않겠냐”고. 또 교회 친구와 백화점에 가서 그 당시에 처음 나오는 고급 치즈를 딱 훑었는데.. 그리고 막 정신없이 그렇게 놀다

보니까 집에 돌아가야 될 시간이 한참 지나서 온 거예요. 친구 둘이랑 그래서 그쪽 아버지랑 저희 아버지랑 만나서 막 혼이 나기 시작했는데 그쪽 부모님이 저희 아버지한테 “자녀 관리 좀 잘하라고! 교육 좀 잘시키라고” 그랬어요.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또 그분에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저한테만 막 화를 내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늘 약한 모습이었어요.** 늘 고개를 세상을 향해서 숙였고, 허리를 굽히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막대기로 자기 지도자가 뺨을 맞는 모습을 보게 되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했는데 저도 가난 때문에 생긴 열등감과 수치심이 참 많았고 늘 남들 앞에 고개를 숙이고 계시는 그 무능한 아빠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한 술 더 떠서 하나님께 기도도 그때부터 많이 했어요. “우리 불쌍한 부모님, 좀 돌봐주셔서 도와주세요.” 그런데 **전혀 응답이 없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거절감.** 그 거절감이 제가 엄청 증폭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대부터는 거의 10년을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았죠.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참 이 말씀 공동체가 있었으면- 목장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이 부부 목장 가면 이렇게 처방받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아이 편을 들어줘야 된다. 아이 편에서 싸워줘야 된다”

근데 제가 한 달 전에 아까 얘기했던 그 치즈를 같이 훔쳐 먹던 그 친구를 코엑스에서 만났어요. 그 친구는 돈도 많고 자상한 아빠 밑에서 자라서.. 제 친구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돈도 많은데 주름도 없고 얼굴도 잘생기고 늘 자신감이 차 있고 나랑은 다르게 이렇게 유머러스하고, 여유가 있고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홍콩에서 개원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한 2~3시간 쪽 얘기를 하는데 계속 듣고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 친구와 같은 교회에서 자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뭔가 .. 그리고 결혼도 자기는 안 하겠다고 그러면서 혼자 살고 있는데... 그 친구랑 헤어지고 휘문으로 쪽 걸어오는 길에 문득 감사가 되었어요. 제 삶을 보면 저는 참 이렇게 하나님이 있잖아요. 저는 좀 부정적인 감정도 많고, 나도 싫은 내 모습이 있는 저이지만 정말 제가 오히려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구나! 진짜 길고 짧은 건 대박야 되는구나! 하는 말이. 그러면서 잊어버리지 않고 “그 친구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 병원 망하게 해주세요.” ^^;;

그런데 사실 제가 기도를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거절감이 많으니까 무슨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 것 같은데...’ 하는 그 생각이 제 마음 바닥에 딱 깔려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난도 그렇지만 제가 가장 거절감을 많이 느꼈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좀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였습니다. 어릴 적 성폭력에 대한 상처로 인해서인지 몰라도 사춘기 때부터 제 안에 음란한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가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의 애정, 사람의 인정에 굶주리고 목말라서 제가 혼전순결도 지키지 못했고, 낙태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매달려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 음란의 죄가 좀 끊어지게 해주세요.” 근데 작심 삼일인 거죠. 야동 삼일인 거죠. “하나님, 제가 뭐 이제 와서 제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죄 좀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좀 끊어지길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좀 속 드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신다고요?” 제가 몇 번 이렇게 대들다가 결국 시험에 빠졌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닌가? 난 종교쟁인가? 택자가 아닌 게 아닐까? 성령 받아야 한다고 하시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성령을 안 주시지?’ 목사 된 지가 10년인데 마음 한 쪽 귀퉁이에 이렇게 회의감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으셨느냐에 대한 그 이유를 제가 깨닫게 된 것이죠. 목사님이 신앙의 목표가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의에 배부르고 충만한 게 복이 있다고 하지 않으시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시라고! 그 말씀을 한 주간 이 말씀을 곱씹으면서 죄를 안 짓게 해달라는 제 기도에 얼마나 많은 저의 교만과 또 욕심이 들어 있었는지 자기애와 자기의, 그리고 자기 중심성이 그득한 기도였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에는 굉장히 교묘하게 제가 예수님이 되고자 함이 숨겨져 있더라구요. 한마디로 이 신앙의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제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정말 용서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인데 그것을 제가 인정을 못한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제 한계와 주제를 편하게 인정하고 공동체에서 솔직하게 좀 제 연약을 나누면 되는데 그 용서와 구원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주님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 관계성 안에서 신뢰와 사랑이 점점 쌓여야 하는데 저는 주님의 능력을 수단으로 삼아서 제 자신이 죄 안 짓는 어떤 성인, 위인이 되고자 했고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훌륭하게 자라나서 결국은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제끼고 제가 사람들과 하나님께 가장 칭송받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는 그런 적그리스도 같은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음을 보게 되었고 깨달아졌습니다. 그게 깨달아지고 나니까 회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뉘으십시오.”가 바로 튀어나왔어요. 죄 안 짓는 사람 되게 해달라는 기도에 하나님 만약에 응답해 주셨다면, 저는 지금쯤 제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만 정죄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이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유대인이 되었을 거예요. 돈 좋아하고 음란한 저인데.. 정말 그때 제 가난을 넘어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면 지금까지도 저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100% 하나님을 정말 떠나서 살고 있을 것이 뻔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해석되지 않는 그 작을지라도의 세팅이 있을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다시 한 번 직면하면서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목상 질문 드리겠습니다.

Q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 서운한 감정들, 거절감이 숨어 있지 않으십니까?

Q 내 삶을 허락하신 '작을지라도'의 세팅이 여전히 해석이 안 되어 자기연민에 갇혀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2. 나를 많은 백성 가운데 두신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참 목자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시는 그 사랑으로 남은 자를 끝끝내 찾아내시고야 맙니다. 그런데 **야곱의 남은 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라** 하십니다. 육적인 어떤 지역에 국한된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 되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원래 구원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밖에 있던 자들이지만 이 유대인들이 스스로 선민이라 여기면서 특권 의식을 누리려고만 했던 이 유대인들의 얼마 간의 어리석음을 통해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 덕택에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퍼지게 되었고 지구 반바퀴를 돌려서 우리들에게도 그 구원이 임했습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같이 좌우에 날선 검같이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심판도 반드시 함께합니다. 이슬과 단비 같아서 이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차별 없이 누구에게든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지만, 또 동시에 이 양떼 앞에 젊은 사자처럼 이 복음에 대항하는 모든 세속적 가치, 육적인 습성을 밟고 찢어 진멸케 하는 것도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주님이 평강이 되시리라**고 하세요. 근데 또 반대로 마태복음 지난 달 큐티에서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느니라** 복음엔 이렇게 양면이 있는 것 같지만 또 그 양면이 결국 하나입니다. 참 신비롭죠. 복음은 오르기 싫은 그 팔복산에는 용기 내서 좀 올라가주렴~ 하는 따뜻한 권면이고, 격려인 동시에 이 초막 지어 머물고 싶은 그 기복산에는 얼른 내려와!! 하면서 엉덩이를 차주는 고통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11명의 장년과 2명의 청년, 사역자인 저를 포함해서 14명이 네팔로 아웃리치를 다녀왔습니다. 아웃리치를 가기 세 달 전부터 우리들교회에서 하는 모든 모임들이 그렇듯이 그날의 말씀으로 준비 모임을 말씀부터 보고 나누면서 첫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만남의 날 11월 12일에 주셨던 말씀이 출애굽기 30장이었어요.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 세겔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날 참 말씀이 입체적으로 임하신 것 같아요. 주일 말씀이 <성령의 구조> 말씀이었었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를 도

와줘야 된다는 그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내 속의 경사짐부터 보면서 마음 아파해야 한다고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신 그 말씀들로 제가 적용을 하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생명의 가치가 다 소중한데 저는 인간적인 기준 또 인간적인 동정심으로 사람을 대할 때가 있고, 또 복음을 네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뭔가 공항에서부터 뭔가 우월의식 그런 것이 드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제 안에 죄를 고백했습니다. 진짜 아웃리치 시작 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딱 맞는 말씀을 주시는구나! 감사했지요 우리 팀 집사님들 중에 한 분은 난임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하시고 임신을 기다리셨는데 모임하는 동안 임신이 딱 되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다고 너무 기뻐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자궁외임신이 되면서 유산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저 같으면 그냥 낙심이 돼서 그냥 다 때려쳤을 거 같아요 안 갔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오히려 자신의 죄를 보시더라고요.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한 그 말씀으로 본인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의 성취로 여겼던 게 있고, 또 직장 사람들을 무시하고 정죄했던 죄가 있었고, 또 정말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정말 제일 좋은 난임 병원에 다니고 있으니까 잘 될 거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던 그런 죄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청년은 아버지를 모시고 아웃리치에 가게 되었는데 자신이 아버지를 위해서 구원의 적용을 자기가 한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아니 반대로 항상 힘든 일-짐을 위에서 높은 데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은 항상 아버지가 그 자리에 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따라갈 수 없는 그 겸손이 아버지는 몸에 배어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진짜 자기 욕심 때문에 아버지한테 죄송하다고 사과의 적용을 하면서 함께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아버지 존경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공동체에서 함께 준비한 이 세 달간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던 점은 우리가 복음을 들고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국외로 아웃리치를 가지만 동시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이 인리치. 내가 바뀌는 사역도 하나님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는구나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네팔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준비한 영상입니다. 잠깐 보시죠. (네팔 아웃리치 영상)

여러분 지금이 21세기잖아요. 근데 이 미가서가 쓰였을 기원전 8세기에 이 미가가 말씀을 받았던 상황과 이 네팔 땅의 상황이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서 보고 너무 놀랐어요. 이 미가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는데 이 아하스가 어떤 짓을 했냐면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레위기 20장 2~4절 보면 인신공양을 한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걸 못 본 채 하고 그 사람을 죽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백성 중에서는 끌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이 네팔 땅에서 이 일이 고스란히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염소의 목을 잘라 바치듯이 아이를 잡는 이런 일들이 있었음을 혹시 경

찰들이 알게 되더라도 쉬쉬 한다고 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도 다 힌두교도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고 같은 레위기 20장 6절을 보면, 접신한 자와 또 박수 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도 백성 중에서 끌어내 버리라고 하시는데 이 힌두산당의 조각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다 성행위를 하는 그 모습으로 조각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세라 우상 앞에서 행하던 그 음란과 똑같이 음란을 행하면서 종교로 뭔가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려는 죄이죠. 성의 그 극한의 쾌락을 통해서 뭔가 이 신과 합일 되는 느낌을 찾겠다는... 인간이 만든 너무나 악하고 음란한 우상인 것입니다.

아웃리치 시간 중에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여러 비유로 천국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신 말씀처럼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땅에도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을 품은 야곱의 남은 자들이 있다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이미 천국을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현지 목사님을 만났어요. 대나무와 양철로 교회를 만드시는데 고무줄로 묶는데 그 고무줄이 탁 끊어지면서 눈에 맞았는데 병원을 바로 못 가셨어요. 그래서 결국 한쪽 눈이 실명되고 말았어요. 근데 어떻게 고백하시냐면 자기가 만약에 실명이 되면 자기 맹인 사역하고 싶다고. 그리고 그분하고 사모님이 그분도 목사님이셨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하고 싶다고 해서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브라만이라고 최고 높은.. 그냥 있기만 해도 그냥 평생 잘 먹고 잘 사는 그걸 버리고 이 천민인 남편 목사님하고 결혼을 하신 그 간증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분들이었지만 진짜 저희 막다 껴안고 막 울면서 그렇게 가족이 되어서 그러면서 이분들이 헤어지는 시간이 되어서 ‘다시는 못 보겠지’ 그런 생각이니까 마음이 너무 먹먹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천국에서 만나요.” 그러면서 차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거기 땅이 단 흙먼지예요. 너무 척박해요. 다 황토색이에요. 근데 저기 노란색 유채꽃 같은 게 피어있는 거예요. 한 20m 환상처럼. 막 이렇게 그래서 무심결에 “저 꽃 너무 예뻐요! 무슨 꽃이에요?” 그랬더니 그 현지 목사님이 “머스트”라고 하시더라고요. 단체티에다 여기 머스타드라고 만들었는데.. 왜냐하면 전체 주제가 머스타드-견자씨. 하나님이 참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작은 선물을 주셨구나! 하며 또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우리들교회가 후원하는 바울신학교 40여명의 신학생들이 있어요. 아까 처음에 간증 나온 그 친구가 멀리서 봐서 잘 안 보이는데 고창석 배우님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팀을 나누서 저희들이 먼저 영문 큐티인을 가지고 큐티를 같이 나누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이 자기 죄로 간증을 하시고 나눔을 하니까 거기에 도전을 받고 자기도 간증하고 싶다고 저녁 집회 시간에 저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 앞에서 자기 죄를 이렇게 이 죄를 고백하는 게 처음이라고.. 자기가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여자들을 많이 찾았다고.. 만났다고.. 아마 와이프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복음 같은 이 간증이 그날 밤에 이슬처럼 다가왔을지 아니면 사자처럼

찢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무 간증이 귀했습니다. 그 간증 집회가 있던 날 큐티 말씀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아웃리치 가기 전부터 그 천국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적용을 해야 할까? 그것만 막 고민하면서 설교 준비를 했는데 네팔 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적용할 게 하나도 없네. 우리가 값을 치르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정말 다 값을 치러주셔서 네팔에 이미 이 천국을 심어 놓으셨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화와 진주로 바라보신다. 너희들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셨다고. 그러니 너희들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 값에 해당하는 가치라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 믿고 또 그렇게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다 보면 집에서 쫓겨날 수 있고, 또 복음 전하다가 고난과 핍박도 많이 당하게 되겠지만 위축되지 말라고. 겨자씨와 누룩이 전부를 바꾸듯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하여 너희 땅과 너희 백성들을 고치실 것이라고 말씀으로 격려해 주었습니다.

하나님도 많은 백성 가운데 우리를 두셨습니다. 각자 줄로 재어주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이슬과 단비의 역할. 또 사자와 젊은 사자의 역할을 균형있게 잘 담당하고 계십니까? 사명 때문에 왔다가 사명 때문에 가는 인생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유대인 같은 생각이 참 꿈틀댁니다. 이기주의적인... ‘하나님 나라는 내 땅에만 임해야 해. 나만 잘 돼! 은혜는 나와 내 집만 누렸으면 좋겠어!’ 하는 그 이기주의와 가족우상이 복음으로 인해서 밟고 찢겨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디아스포라의 삶, 이 나그네의 삶.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삶이 우리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라고! 복음이 없는 가족들, 복음이 없는 불신 친구, 친지들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두신 하나님이십니다.

■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Q 전도 대상자에게 따뜻한 위로와 도움만 주면서 막상 교회로 나오셔서 말씀 들으셔야 한다는 그 본론은 말씀 못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Q 반대로 손과 발이 가는 섬김의 적용이 없어서 “너나 잘 믿으세요~” 하는 조롱을 듣지는 않으셨습니까?

Q 많은 백성 가운데 나를 두신 이유가 영혼 구원 때문임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3.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실 심판이 반가워야 합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카이로스의 때에 그날이 이르러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심판의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부수시겠다고 하세요. 당시 최고 위력의 무기가 바로 말 아닙니까? 병거와 군마. 그것들을 모두 부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거라 하셨습니다. 성읍의 기원이 어디서부터인지 아시죠? 살인자 가인의 때부터 잼아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오니 서로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뒤통수를 보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그날이 이르면 내가 의지하고 살았던 모든 것들- 차, 집, 보험, 스펙, 학식, 외모, 인간관계...- 그 모든 것들이 필요 없게 만드시겠다고 하세요. 요즘은 그 무엇보다도 외모 경쟁력이 가장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예뻐 보이고 잘생겨 보이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건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작년부터 염색을 안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셨나? 왜 이렇게 늙으셨나?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나 외모 좀 내려놔어~ 이제 신경 안써~”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저는 약간 로망이 있어요. 백발의 근사한 모습. 지금은 약간 어중간한데 완전 백발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멋있게 보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미학적인 기준이 사실은 학습되어 지는 거라고.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요즘에 “너무 예뻐!!인형 같아!!” 하는 사람들이 이 미가 시대에 가면 .. 아니 200년 전 그냥 조선시대에만 가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그런... 참 외모라는 게 참 알пах합니다. 우린 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또 우리는 외모로 봐야지 않냐고. 우리 한계를 늘 증명하고.. 근데 우리도 그날이 이르면 하나님처럼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멸절하겠다고 하세요. 그 우상, 주석, 주상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 누가 믿냐? 하겠지만 의외로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 영적인 어떤 그 기운을 무서워하고 해코지당할까 봐 두려워도 하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섬기는 초원의 한 목자님이 조카 집에 갔는데 이 달마도를 좀 치우고 싶었는데 못 치우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뜯어내가지고 버려버리고 왔다고. 참 잘 하셨습니다.

또 복술과 또 점쟁이도 끊어내겠다고 하십니다. 사람이 이 장차 올 일을 너무 알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걸 보면 사실 두려움이 있고, 또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미리 알게 되면 안 좋은 일은 좀 피하고 싶고, 또 길한 일은 더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인 것이죠.

우리들교회 양육 잘 받으면 그런 두려움이 없어져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가자! 대가지불! 성령 충만이 갈등 충만입니다! 있어야 할 일! 불회떨감! 이런 가치관으로 우리의 정신을 무장하면 됩니다. 아까 영상에도 나오고 광고도 했듯이 부모 학교가 내일부터 10시부터 신청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우상이 되기 쉬운 존재가 누구입니까? 자녀죠.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우리 자녀들이 영적후사가 되고, 말씀 공동체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갇으**

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진노와 분노로 대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반가우십니까?

저는 조금씩이지만 그게 좀 반가워지기 시작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째는 제가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너무 애통해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의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사실 ‘**들리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지 아니한 나라에 하나님이 갓으시는 거죠. 제가 이 땅에서의 배부름- 이 기복의 배부름- 때문에 평생 말씀이 들리지 않을까봐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진노와 분노로 찾아오셔서 양육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매주 진짜 말씀이 들리고, 영적 지수가 업그레이드 되어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분수령적인 회개가 정말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결단 때문입니다. 지난 목요일 본문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피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있을진저** 마음에 악이 가득하면 손에 힘이 있는 것 자체가 참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회개 기도를 하면 늘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중얼거리기만 했던 것 같아요. 용서해달라는 기도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맹목적으로 그 용서를 구하기기를 반복하는 제 마음의 자세에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요즘 많이 보게 됩니다. 마치 이런 심정인 것이죠. “하나님, 눈 좀 감아주세요. 죄 때문에 지금 제 마음이 좀 불편한데 마음의 평안을 좀 주세요. 사고는 쳤지만 손해는 보지 않게 해주세요.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좀 어차피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 좀 안 걸리게 좀 넘어가 주세요. 거짓말한 거 한번 숨겨주세요. 댕가지불을 하나님이 좀 대신해 주세요.” 제가 맹목적으로 해왔던 이 회개에는 결국 하나님께 면죄부 좀 주셔서 또 한 번 제가 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 권리와 권한을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마음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 기도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섭게 진노해 주십시오. 눈물이 쏙 빠지게 분노해 주십시오. 죄에 대한 대가를 제게 모두 갚아 주십시오.” 제가 정말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의 목적이 또 변해가면서 저희 기도의 마음도 변해 가고 있습니다. 코람데오라고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제가 정말 변하게 되기를 소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변하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변하여 사랑하는 하나님께 드릴 것만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줄 것만 있는 예수님 닮은 참 목자가 되고 싶습니다.

말씀 묵상의 꽃이 적용인데 이렇게 힘든 말씀 15절 같은 말씀 보면 무의식적으로 나는 패스~ 하면서 안 읽히죠. ‘나한테 주신 말씀은 아니야~’ 근데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삶을 살고 있으며 자기애와 또 자기 중심적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오지 못한**

증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명하십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보험이 아니라 상급 그 자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Q **내가 가장 의지하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Q **내가 두려워 눈치 보는 우상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Q **말씀을 취사선택하면서 듣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멋진 그릇으로 보여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의의 본질되신 주님을! 예수님을 담아내는 질그릇되는 우리들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잠잠히 좀 나아가서 주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내 원함, 내 연민에서 이제는 좀 빠져나와서 주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왕관을 놓고 주님께 나아와 그 옷자락을 만지게 해달라고. 내 삶이 허락하신 ‘작을지라도’의 하나님의 세팅을 이해하게 해주시고, 백성 가운데 우리를 두신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내 자신보다 더 신뢰가 되어서 심판의 말씀도 넉넉히 받고 아멘할 수 있는 우리들 해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처럼 잘 훈련된 온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셔야 한다고! 하나님을 움직이고 조종하려고 했던 저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께 거절감을 느끼고 내 삶을 고의적으로 망가뜨리며 온몸으로 주님을 부인했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 이제는 너의 연민에, 너의 생각에, 너의 감정에 빠져 있지 말고 나에게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말씀으로 나오라 하시고, 공동체로 나오라 하십니다. 주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사방으로 에워싸임 같은 이 환란의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해산하는 여인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라도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약]23.3.5. 미가5:1-15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1. 내 삶에 허락하신 ‘작을지라도’가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Q.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 서운한 감정들, 거절감이 숨어 있지 않으십니까?

Q. 내 삶을 허락하신 ‘작을지라도’의 세팅이 여전히 해석이 안 되어 자기연민에 갇혀 있지 않으십니까?

2. 나를 많은 백성 가운데 두신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Q. 전도 대상자에게 따뜻한 위로와 도움만 주면서 막상 교회로 나오셔서 말씀 들으셔야 한다는 그 본론은 말씀 못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Q. 반대로 손과 발이 가는 섬김의 적용이 없어서 “너나 잘 믿으세요~” 하는 조롱을 듣지는 않으셨습니까?

Q. 많은 백성 가운데 나를 두신 이유가 영혼 구원 때문임을 인정하십니까?

3.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실 심판이 반가워야 합니다.

Q. 내가 가장 의지하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Q. 내가 두려워 눈치 보는 우상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Q. 말씀을 취사선택하면서 듣고 있지는 않으십니까?